

■ 한라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 /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나만 아닌, 함께 잘 살아야 더 큰 행복”

서귀포 이상철·문영옥 부부
어르신 식사·장학금 후원
보육원 퇴소하는 청년 위해
3년전부터 안정자금 지원



희집을 운영하며 아동 돌기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상철·문영옥씨 부부.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유명 맛집 쌍둥이희집 대표 이상철·문영옥 부부는 지역 내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2022년 한라일보와 초록우산이 공동기획한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캠페인의 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이상철·문영옥씨 부부를 소개한다.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부부는 수년째 지역 내 어르신들께 월 1회 식사를 대접하고, 각각 졸업한 모교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 1000만원씩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의 자립지원금만 받고 퇴소하는 보육원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3년 전부터는 서귀포시 보육원 퇴소아동들에게 한 아이당 500만원씩을 후원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

외식업협회 서귀포지회에서 활동하며 오랜 기간 초록우산과 인연을 맺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 선 부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귀포시 후원회 김미자 회장(서귀포수협조합장)의 권유로 고액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도 가입했다. 문영옥 대표는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하며 '아차'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평소 보육원을 퇴소하는 아동과 모교에 장학금을 지원하

고 있었는데 0세부터 19세까지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영옥 대표는 초록우산 서귀포시 후원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눈에 밟히고, 주변에 어려운 아이들은 없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다"며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같이 잘 살아야 더 큰 행복이 온다"고 나눔에 대한 가치를 피력했다.

이상철·문영옥씨 부부는 "어린이는 아직 어린 새싹이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부부에게 주어지는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아이들을 향한 따뜻하고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했다.

※ 후원문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064-753-3703)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성탄미사 성탄절인 25일 제주시 중앙성당에서 성탄 축하 미사가 열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차 훔치고 유혹비로... 간 큰 중학생들 경찰,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8명 붙잡아

새벽 시간대 제주공항 주차타워에서 차량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던 중학생 2명과 함께 범행을 벌인 중학생 6명이 경찰에 추가로 검거됐다. 이들 8명의 중학생 일당 중 주범 3명이 구속됐으며 경찰은 또 다른 범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자동차 등 불법 사용,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A(15)군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8명 중 5명은 심야시간대 제주공항 주차타

워와 제주시 호텔,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했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거나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일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며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수법으로 차량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량에서 2개월여간 50회에 걸쳐 총 3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훔친 현금은 나눠 갖고 물품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팔아 현금화했으며 유혹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영기자

“15분도시 빙자 가로수 학살 중단하라” 시민연대 버스중앙차로 공사 철회 촉구

제주시 서광로 가로수·자전거도로 제거 공사와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가로수 시민연대는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광로 3km 구간에서 수십 년 수령의 가로수 100여 그루가 마구잡이로 제거되고 있다”며 “15분 도시를 빙자한 제주도정의 가로수 학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로수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 BRT 전용 중앙차로 신설공사는 토건맹신주의의 산물이며 연간 1000억원 적자의 준공영제에 이은 제2의 초대형 제주교통정



척 참사"라며 "총 328억원을 들여 건입동-노형동 10여km 구간 전체의 가로수 환단·보행경용 자전거도로를 제거하려는 터무니없는 중앙차로 신설공사 사업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도영기자

제주 '화이트 크리스마스' 61년간 딱 5번

기상청 “2010년이 마지막”

지난 61년간 제주지역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룬 해는 다섯 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기상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크리스마스 시기 기상·기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61~2021년까지 지난 61년간 제주지역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이룬 해는 총 다섯 차례다. 통산 성탄절 당일엔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로 눈이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는 1965년, 1966년, 1983년, 1984년, 2010년 성탄절에 적설량을 기록할 정도로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부른다. 특히 2000년 이전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네 차례였지만 2010년

이후에는 한 차례로 감소하는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영향으로 점차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크리스마스 시기 제주지역 평균 기온은 7.3°C, 평균 최고기온은 10.4°C, 평균 최저기온은 4.4°C였던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가장 따뜻했던 크리스마스는 1987년으로 평균 최고기온이 무려 19.8°C를 보였다. 반대로 가장 추웠던 크리스마스는 2010년으로 평균 최저기온이 -0.2°C를 기록해 61년간 유일한 영하권 최저기온을 보였다. 한편 지난 22~24일 제주에 폭설이 이어졌지만 성탄절인 25일에는 눈이 그치며 올해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없던 해로 기록됐다. 이상민기자

올 겨울, 따뜻한 혜택으로 노비타를 만나보세요

무료설치 | 에코백 증정 | 비데 필터 증정(2개)

2022.11.09 - 12.31

스마트플러스비데 BD-AC50N 4만원 할인 239,000원 199,000원 #생활방수 #어린이기능 #자동노즐세척	3년무상A/S BD-AFE50N 7만원 할인 299,000원 229,000원 #생활방수 #어린이기능 #자동노즐세척	살균비데 BD-H500E0 4만원 할인 335,000원 295,000원 #매일자동살균 #미스트세정 #자동노즐세척 #강력방수	살균비데(리모컨) BD-H700H0 5만원 할인 419,000원 369,000원 #매일자동살균 #세가지수류 #3D무브 #강력방수
--------------------------------------------------------------------------------------------------	--------------------------------------------------------------------------------------------------	-------------------------------------------------------------------------------------------------------	----------------------------------------------------------------------------------------------------------

구입문의 | 제주총판 및 A/S센터 064-758-0991
주소: 제주시 연삼로17

novita A KOHLER COMPANY